

네비게이션 기법 축농증 수술 부작용 줄여 펫CT 검사로 파킨슨병 진단 정확도 높여

조선대병원 수술·검사법

치료 정확도 높여 큰 호응

조선대병원이 도입한 첨단 수술 및 검사 기법이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차원 수술법으로 축농증을 치료하는가 하면 파킨슨병 펫시티 도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코 안 수술 네비게이션 시스템 도입=인공위성을 이용해 선박이나 자동차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인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이비인후과 코수술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뇌수술을 위한 네비게이션 장비만 개발돼 사용되어 왔으나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가 전국 최초로 코수술을 위해 디자인된 3차원 네비게이션(Navigation) 시스템을 도입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대병원에 도입된 네비게이션(Navigation) 시스템은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 기법 장비로서 환자 몸에 붙인 센서와 탐침기(센서감지기)를 이용, 수술위치나 병소를 2mm 오차 범위 내에서 3차원 영상으로 표시해 준다. 건강한 부위는 피하고 병소만 제거하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비동은 구조가 매우 복잡한다. 뇌와 눈과 같은 중요한 구조물이 가까이 있어 자칫 시신경 손상이나 뇌막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때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면 3차원 영상을 통해 수술 전 촬영한 CT나 MRI와 같은 영상 결과를 토대로 수



최지훈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3차원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 코 안의 종양을 수술하고 있다.

술이 진행되는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 줄일 수 있으며, 기존의 내시경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부위의 병을 보다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축농증 수술 뒤 재발했거나 선천적으로 부비동의 구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외상으로 인해 해부학적 구조가 바뀐 경우, 부비동염이 넓게 퍼져있거나 물혹이 많을 때 또는 내시경만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병변부위를 수술 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에 의사의 경험에 의지해 진행했던 축농증 수술에 비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져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수

술 후 높은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주·전남 대학병원 최초로 파킨슨병 펫시티 검사 도입=조선대병원 핵의학과는 파킨슨병 검사를 광주·전남지역 대학병원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이는 방사성 표지를 특수 의약품인 FP-CIT를 이용한 도파민 운반체 펫시티 영상으로써, 파킨슨병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최신 영상기법이다.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보건, 경제, 심리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그동안 파킨슨병의 진단은 거의 전적으로 임상적 소견에 의존해 왔고, 이에 따른 조기 진단의 어려

움과 질병 진행 정도의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의 미흡함이 문제였다. 도파민운반체 영상인 FP-CIT PET/CT검사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감별진단과 중증도 판정, 추적관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FP-CIT PET/CT는 국내 제3상 임상 시험에서 100% 민감도와 97% 특이도를 보였고, 이미 많은 해외 연구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우수한 검사이다. 특히 파킨슨병과 비슷한 임상 증상을 보여 감별이 필요했던 본태성 진전, 다중신경계 위축, 진행성 핵상마비 등을 진단 배제하는데 이용되며 임상 증상이 미미하거나 비특이적인 파킨슨병 초기에도 민감한 영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장흥 오지마을 의료봉사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이 개원 43주년을 맞아 의료환경이 열악해 의료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흥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의료봉사를 간다.

이번 의료봉사는 장흥군 대덕읍복지관에서 초음파기, 혈압계, 심전도기, 물리치료기, 당뇨측정기 등과 의약품을 준비하고 가정의학과·내과·정형외과·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영상의학과 등이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노후화된 전기 시설을 교체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민에게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조선대병원은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농어촌에 관심을 기울여 해마다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식목일 나무심기 조선대병원은 식목일을 맞아 최근 병원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나무심기 및 병원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섰다.



'생명의 씨앗' 장기기증 - 조혈모세포이식

파괴된 골수기능 회복... 조혈기능 가능하게

과거에는 골수이식이라 불리웠던 이 기술은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조혈모세포가 골수 뿐 아니라 항암치료 후나 조혈질환을 앓은 후 일시적으로 말초혈액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신생아 출산시 제대(태플) 혈액에도 조혈모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진 뒤 이들을 이용한 이식을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이라 부르게 됐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종양 환자는 병적 상태인 골수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대량의 항암화학요법이나 전신방사선 조사를 실시해 질병을 치료한다. 이후 파괴된 환자의 골수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조직 적합 형질

되지만 성공적으로만 끝난다면 다른 이식과는 다르게 면역억제제를 평생 먹지 않아도 되고 환자의 비정상적인 골수세포를 완전히 없애고 이식받은 환자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바뀔수록 이식편대 중양반응으로 혈액종양환자를 완치시킬 수 있는 이상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주로 다발골수종이나 악성림프종환자들에게 시행된다. 먼저 항암치료를 시행해 본인 골수내의 악성 세포들을 최대한 없앤 다음,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채집·동결 보관하고 이후에 미세 잔존하는 암세포들을 대량의 항암치료 후에 동결 보관했던 본인의 골수세포를 다시 주사해주는 방법이다. 환자의 동결보관된 세포에 잔



박성근 교수

후 생각과 면역 기능의 회복속도가 빨라 최근 선호되는 방법이다. <항암제 용량을 줄인 비골수제거 조혈모세포이식>=조혈모세포이식은 혈액종양환자를 치료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기술이지만 비싼 비용과 더불어 그 기술이 간단하지 않고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또한 많으며 HLA(공여자와 환자와의 적합성 검사)가 일치된 공여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사용하면서도 병적상태의 골수세포를 없애는 데 사용하는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는 비골수제거 조혈모세포이식술이 개발돼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이식법은 전통적인 골수이식법에 비해 항암제의 독성이 적으면서 조혈모세포의 생착은 빨라 감염 등의 이식 관련 합병증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고령자나 심장질환, 영양실조 등의 동반된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로운 면역억제제의 개발로 HLA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이식편대숙주반응(GVHD)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HLA 불일치 조혈모세포이식술 혹은 HLA 일배수동종 이식 등의 성공률이 상승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암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이식에 드는 비용은 줄어들고 있어 좀 더 많은 혈액암 환자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움말=조선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중앙혈액내과 박성근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

공여자 따라 동종·자가·제대혈이식 분류

항암제 독성·합병증 낮춰 고령자에 적용

이 일치하는 건강한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를 주입한다. 또는 본인 자신의 골수세포를 채취해 급속냉동 보관후에 해동, 정맥내로 주입해 환자의 골수 내에 생착되도록 유도해 정상적인 조혈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이 시술은 재생 불량성 빈혈, 선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비악성 혈액질환에서도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새로 심어줌으로써 질병을 완치시킬 수도 있는 효과 있는 치료법이다.

◇공여자에 따른 분류=조혈모세포이식은 공여자에 따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제대혈이식 등으로 분류된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에게 고용량 항암 화학 요법 혹은 방사선 요법을 시행한 다음, 조직 적합성 형질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가족, 타인)의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액)를 채취해 환자의 정맥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식편대 숙주반응이 문제시

존양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재발 가능성이 문제지만 다발골수종의 초치료 혹은 재발성 불응성 림프종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부작용 등이 동종 조혈모세포이식보다 크지 않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제대혈이식은 아기의 태플 혈액(제대혈)에는 상인의 골수와 같이 풍부한 조혈모세포가 존재해, 이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써 활발히 연구 및 시도되고 있다.

◇조혈모세포채취방법에 따른 분류=골수조혈모세포이식은 대개 엉덩이뼈의 골수를 직접 채취해 불순물을 거른 뒤에 환자의 정맥을 통해 수혈처럼 주사하는 방법이다.

또 말초조혈모세포이식은 항암 치료등으로 혈액이 저하돼 있을 때나 특수한 성장촉진제를 투여 시 일시적으로 말초혈액으로 나올 수 있는 데, 이를 채취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술하지 않고 채취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식

목포 근린주택, 매매 목포시 용당동 1056-5 '구' 맹수한의원 건물

- 2004년도 신축, 6층 건물
- 대지 144P 건평 433P
- 임대상황 - 1층 5천만원에 월 550만원(아웃도어 매장) 임대 2층 1억에 월 180만원(한의원) 임대 3,4,5층 임대중. 6층주택 임대중
- 매매가 - 16억5천만원
- 법인체 인수 가능 - 이전비 없음

순천 근린상가, 매매 순천시 왕지동 872-6 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2013년도 신축, 5층 건물
- 대지 144P 건평 480P
- 임대상황 - 1층 프랜차이즈 카페 가게약 2층 커피숍 임대(보 5천만원에 월 200만원) 3층 보험회사 임대(보 7천만원에 월 180만원) 4,5층 임대중
- 매매가 - 24억
- 법인체 인수 가능 - 이전비 없음

주인 직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오피스텔 “급매”	15P - 3300만원
수기동 제일 OP	23P - 6500만원
	53P - 1억 5500만원